

소식

마아리브 Ma'ariv 의 라헬

이스라엘 제 2대 신문 마아리브는 저희가 사랑하는 자매 라헬 (엔 케렘 Ein Kerem 거주)의 이야기에 4면이나 할애했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주말 판 부록 표지에 라헬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글쓴이는 비 종교인이었지만, 글은 매우 긍정적이었고, 지금껏 이스라엘 언론에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다룬 기사들 중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라헬의 구원 받은 간증이 수십 만 독자들의 심령을 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에 있는 요니 Yoni

이번 주, 10명의 이스라엘 국회 (크네세트) 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의 친선 축구 경기를 위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행사는 이스라엘과 극동 국가들 간의 친선 관계를 장려하기 위한 대대적 노력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행사는, 히브리어를 하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한국의 성도 윤 요니가 출선하여 기획한 것입니다. 이 노력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극동 간의 성공적 외교 관계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리암 Maryam 과 마르지에 Marzieh

인터넷 보도 중에, 이란의 무슬림 출신 여성 그리스도인인 마리암 루스탐푸르 Maryam Rustampoor (27)와 마르지에 아미리자데 Marzieh Amirizadeh (30)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3월 5일에 체포되었습니다. 죄목은 “배교”입니다. 이후 몇 달간 이들은 이란의 감옥에서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담대하게 증거하며, 잔인한 사법 당국을 마주해서도 신앙 번복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에게 힘과 자유 주시기를, 그리고 이들의 간증으로 언론을 통해 수백만의 심령이 감동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환란 후 휴거

마지막 때의 중심 사건은 예슈아의 재림입니다. 이 사건으로 향하기까지는, 전쟁과 환란이 먼저 있습니다. 재림 때, 휴거라는 대단히 초자연적인 사건이 있을 것인데, 그 때 성도들은 변화되어 (transformed) 하늘로 올릴 것입니다.

성경엔 휴거에 대한 7 군데의 주요하고 정황적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휴거가 환란 이전에 일어난다고 가르치지만, 이 7 구절 모두가 환란 이후의 휴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마 24:29 "환란 후에..." 올리브 산 예언 중에, 예슈아께서는 당신께서 영광 중에 오실 것과 천사들을 보내 사방에서 택하신 자를 모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환란 “이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2. **마 24:38 "그 날까지..."** 예수아께서는 당신의 재림을 노아의 홍수와 비견하십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모든 게 파괴된 그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오심과 만물의 파멸 사이에는 틈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환란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아께서 오실 때 밭에 있던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멧돌질을 하던 여인 둘 중 하나는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입니다.
3. **막 13:24 "그 환란 후..."** 마가는 올리브 산에서의 환란과 재림, 휴거에 대한 설교를 마태보다 더욱 상세하게 전합니다. 그는 또한 휴거가 환란 "이후"라고 반복합니다.
4. **눅 17:27, 29 "그 날까지...", "그 날에..."** □ 누가는 예수아께서 당신의 오심과 노아의 홍수를 비교하여 말씀하신 것을 반복하며, 소돔의 멸망 비유를 첨가합니다. 노아처럼 롯에게도, 완전한 멸망은 즉시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끝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시간적 공백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데려가신 그 날,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5. **고전 15:52 "나팔 (쇼파르)소리가 나매..."** □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환란 기간에 7 나팔이 있을 것으로 기록합니다 (7 나팔은 나팔절 [레 23:24]과 관련이 있고, 마지막 나팔은 속죄일 [레 25:9]과 관련된 것입니다.). 휴거는 7 나팔과 환란 이후, 죽은 자의 부활 직후 마지막 나팔에 일어납니다.
6. **살전 4:15 "오실 때까지 남아..."** 성도들이 재림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다면, 그보다 몇 년 전에 떠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15 절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 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있습니다. 부활은 환란 이후에 일어납니다. 휴거가 부활을 "결코 앞서지 못한다"면, 환란보다도 이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때에 야만"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뵈는 것입니다 (17 절).
7. **살후 2:3 "배교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 □ 바울은 그 "날"에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아의 재림과 그 분 앞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한꺼번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들은 세계적 배교가 있고, 멸망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야 일어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면, 휴거는 환란 이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7 구절들은 휴거의 시기가 환란 이후라고 말씀합니다. 흔히들 휴거가 환란 이전이라고 가르치는데, 이는 전세계 메시아의 몸 가운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주: 마 13:41 과 49 의 비유나 예수아께서 "아버지의 집"에 대해 강해하신 요 14:2-3 도 휴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교회가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환란 중에 이 곳에 없을 거라 믿는다면 준비를 하지 않을 것이고, 무방비 상태로 마귀와 적그리스도에게 쉬이 공격 당할 것입니다.

예슈아께서는 결코 우리를 환란을 피해 데려가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우릴 강하게 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요 16:33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요 17:15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슈아처럼 우리도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승리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칩시다.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되어 이스라엘이 홀로 적그리스도에 맞서 싸우며 고통 받을 것이라는 위험한 거짓 가르침을 뿌리 뽑읍시다.